

도둑질 일기

이윤희

여름 방학이 끝나고 초등학생인 나와 동생은 2학기를 맞아 다시 열심히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개학하고 며칠 후 동생이 집에 와 자랑을 했다.

“엄마, 나 선생님이 일기 잘 썼다고 칭찬해 주셨어.”

엄마와 나는 동생을 보고 잘했다는 칭찬을 또 했다.

“그런데 일기를 어떻게 썼길래 칭찬을 받았어? 엄마 읽어 보고 싶다.”

엄마가 물어보니 동생은 당황했다.

“에이, 엄마 뭘 그런 걸 보려고 해. 일기는 프라이버시야.”

나는 당황한 동생을 보고 편을 들어주었다. 그제서야 동생이 안심하는 눈치였다.

공부방으로 들어온 나는 책상에 올려진 동생의 일기장을 보았다. 개학 전날의 일기가 펼쳐져 있었고 동생의 담임 선생님이 ‘아주 재밌는 방학을 보냈구나’로 시작하는 답장을 써 주셨다. 나는 그러면 안 되지만 펼쳐져 있는 일기장에 눈이 갔다가 점점 눈이 커졌다.

8월 15일 광복절

날씨: 내 속도 모르고 맑음

제목: 벌써 개학이라니

오늘은 우리나라의 77번째 광복절이다. (중략) 나라를 되찾은 것은 참 좋은 날이지만 나는 내일이 개학이라는 것이 슬프다.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다. 방학이 너무 빠르게 흘러갔다. 이리다 나도 금세 할머니가 되겠다.

분명 재밌게 쓴 일기였는데 나는 뭔가 이상했다. ‘화살처럼 빠르다, 금세 할머니가 되겠다’는 내가 쓴 일기랑 똑같은 말이었다. 나는 일기장을 넘겨 보았다.

8월 9일 화요일

날씨: 비님이 심술 부리는 날

제목: 우리는 비에 지지 않아

드디어 2박 3일 휴가를 가는 날이다. 그런데 전날부터 비가 마구 내리기 시작했다. (중략) 우리는 씩씩하게 길을 떠났다. 우리는 날씨에 지지 않아. (중략) 물에 못 들어갈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들어갈 수 있었다. 바다가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았다.

휴가를 떠나던 날 일기에서도 ‘우리는 지지 않아’라든가 ‘바다가 우리를 부른다’ 등의 표현이 내가 쓴 일기랑 똑같았다.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동생이 내 일기를 베꼈구나. 그런데 뻔뻔하게도 그 일기

로 칭찬까지 받았다고 자랑하다니. 나는 배신감이 들었다. 하지만 바로 동생에게 뭐라고 하거나 엄마에게 말해서 동생을 혼내면 동생이 많이 무안할 것 같았다. 개학 전날 동생이 일기가 밀렸다면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던 게 생각났기 때문이다.

일단 일기를 덮고 못 본 척 학원 숙제를 하고 있었다. 잠시 후 동생이 들어오더니 책상 위의 일기를 얼른 가방에 넣었다.

“있잖아, 그거 알아? ○○○ 노래, △△△ 노래랑 똑같다.”

나는 최근 표절 시비가 있는 가수의 노래와 원곡을 들려주었다.

“와, 진짜 똑같다. 이거 진짜 표절 같은데? ○○ 가수는 뭐래?”

“몰라, 아직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와, 이거 완전 도둑질인데.”

하더니 동생은 멈칫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맞아, 도둑질. 남이 열심히 만든 노래를 너무 쉽게 베껴 쓰다니. 내가 원곡자이면 많이 속상할 것 같아. 그리고 다음부터는 열심히 노래를 만들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덜 유명하다는 이유로 내 노래가 도둑맞아도 이렇게 조용하다면.”

동생은 나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더니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말했다.

“언니, 나 할 말 있어.”

동생은 개학 전날 자신이 내 일기를 몰래 베껴 썼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일기 쓰기가 너무 싫어서 그랬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무엇보다 동생의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다.

“언니 일기 도둑질해서 미안해.”

나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뉘우친 동생이 기특했다. 만약 내가

화를 냈다면, 엄마가 혼을 냈다면, 동생은 잘못을 깨닫기보다 기분이 나쁘고 부끄러웠을 것이다.

글이든 노래든 창작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게 쓴 작품을 베껴 쓰는 것은 나쁜 것이다. 자신의 양심을 배신하는 일이다. 눈에 보이는 도둑질만 도둑질이 아니다.

내 동생은 내 일기를 베껴 쓰는 잘못을 했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다. 아마 동생은 다음부터 일기 쓰기가 힘들어도 내 일기를 베끼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건 잘못을 깨닫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동생의 잘못을 일깨워 준 것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동생도 아주 기특했다.

“가자, 언니가 아이스크림 사 줄게.”

나는 동생의 기분을 풀어 줄 겸 동생과 함께 편의점으로 향했다. 아주 엄청난 하루가 지나고 있었다.